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향년 97세

일본 정부 제대로 된 사과 못 받고 눈 감아...생존자 '6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2일 (사)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는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나 1942년 열다섯 살의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후 중국에 머물며 해방을 맞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다. 지난 2000년 6월 귀국해 이듬해 국적

을 회복했다. 이후에는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으로 투병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불면한 몸을 이끌고 일본·미국·호주·독일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증언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승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자는 6명으로 줄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이중 234명이 사망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6세다. 한편 이옥선 할머니를 모델로 한 광주 남구 앙림동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나 작가가 제작한 작품이다. 소녀상에는 열여섯 살 시절의 이옥선 할머니

가 의자에 앉아 있고 바로 옆에는 92세의 할머니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표현됐다. ‘진실(Truth)’이라는 제목의 이 조형물은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는 영화 ‘귀향’의 실존 인물이자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의 주인공으로도 재조명된 바 있다. 2002년에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강연하며 세계에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렸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증언 활동을 지속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광주교통공사

지역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옥동 차량 기지에서 지역의 철도도목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로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공업고등학교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기지 내 실습실에서 진행됐으며, 레일 절선 시 응급 복구 방법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직무 중심의 체험 활동을 생동감 있게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도시철도 운영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향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선배 엔지니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도시철도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전남청년센터가 최근 순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6기 107명 수료

‘전남 청년 서포터즈’ 위촉 지역 청년 소통창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전남청년센터가 최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1기부터 6기까지 이어져 온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 청년의 역량을 더욱 키워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자양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제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교육 수료를 마친 10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호남 청년 아카데미 활성화에 이바지한 교육생 6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이번 6기 수료생 107명은 ‘전남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돼 전남도와 지역 청년의 소통창구로서뿐만 아니라 실용성 있는 청년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난 3월 15일 개강해 3회차 명사특강, 현장학습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2회차 송길영 교수의 ‘변화의 시대, 청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3회차 현장학습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 근대문화역사관 일일 방문, 4회차 박현도 교수의 ‘트럼프 2.0과 중동’, 5회차 노홍철 교사의 ‘호기심과 실행력만 있어도 살라는 세상’로 진행됐다. 이성의 중기업일자리진흥원장은 “이번 아카데미 과정이 교육생들의 참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하반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과정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군 금산면은 최근 김일기념체육관에서 ‘행복한 금산! 우리 모두 하나되는 민민의 날’을 주제로 제30회 금산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고흥 금산면, 제30회 민민의 날 ‘성황’

‘남도의 제주도! 금산면’ 미래 비전 선포

고흥군 금산면은 최근 김일기념체육관에서 ‘행복한 금산! 우리 모두 하나되는 민민의 날’을 주제로 제30회 금산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식은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1000여명의 민민과 출향 향우들이 참석했다. 또한 금산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금산면민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고흥 사랑기부금과 종도리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재경금산면 향우회가 1000만원, 송광안산도회가 100만원을 기탁하며, 출향 인사들의 고흥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금산면 새마을부녀회와 ㈜스마트건설 김민중 대표이사가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금산면 71년 연합회, 관음사, 호용종합건설 황영일 대표이사, 동진건설 오철용 대표이사가 각각 100만원의 종도리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마음을 모았다. 특히 ‘남도의 제주도! 금산면’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통해 금산의 관광자원과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민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황진동 금산면장은 “거름도 관광 프로젝트, 어촌 뉴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금산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2030년 금산 정주 인구 5000명, 고흥군 인구 10만명 시대를 우리 금산에서 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SNNC는 2025년 5월 7(화)에 WYCA에 4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SNNC

광양YWCA에 4100만원 전달

포스코 투자사인 SNNC는 최근 임직원들이 조성한 성금 4100만원을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광양YWCA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달된 성금은 도시락 및 급식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영양공급이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 식단과 식품 꾸러미를 전달, 어르신들의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된다. SNNC의 김유은 리더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일상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담을 느끼시는 현실을 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YWCA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탁에 작지만 따뜻한 위트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양=귀권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호남 첫 항암 주사 조제로봇 도입

‘키오 온콜로지’...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성 향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호남 최초로 최첨단 자동 항암주사 조제 로봇 ‘키오 온콜로지(KIRO Oncology)’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로봇은 미국과 스페인 등 전 세계 34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이다. 2개의 로봇팔이 최소 0.25ml의 극소량까지 정밀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소아암 등 정밀 맞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돼 있다.

또 항암제에 사용하는 수액제의 체형이나 제조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술인 ‘Universal Vial Adaptor’를 통해 다양한 규격의 약병(바이알)에 자동으로 맞춰져 신약 대응력에도 탁월하다. 이는 병원의 임상 연구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약제부는 이번 도입한 항암 주사 조제 로봇을 비롯해 마약류 전자동 약품분배 캐비닛 시스템(Automated Dispensing Cabinets·ADC)과 자동 검수기능(Automatic Re-dispensing·ARD)이 탑재된 정제 전자동 분포기 등 다양한 조제 자동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첨단 자동화 조제 기술로 환자 중심의 약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항암주사 조제 로봇 도입을 계기로 정밀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암 병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류선용(법무부의료과)·양효정(순천시청 관광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항란씨의 딸 혜빈(순천 평화병원)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확대피해노인전담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양육·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안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6일)

- 쥐** 48년생 지간에 많은 돈을 넣지 마라. 60년생 손해 보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라. 72년생 세심하게 살펴야 안전을 도모한다. 84년생 중대한 거래 놓치지 될 것. 96년생 고민을 여기하는 것이 좋겠다.
- 토끼** 51년생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63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다. 75년생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87년생 시비로 피곤하게 될 것. 99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말** 54년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66년생 배우자와 의논하면 도움이 된다. 78년생 오늘은 근심할 때. 90년생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
- 돼지** 57년생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니 경계하라. 69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81년생 돈이 막히는 날. 93년생 횡재수, 그러나 요행은 금물.
- 소** 49년생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진다. 61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띤다. 73년생 할 일은 하라 병이 되리니. 85년생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 9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 황** 52년생 그것도 그것이니 비교하지 마라. 64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헛수고. 76년생 소신대로 처리하면 우리가 없다. 88년생 괜한 친절은 베풀지 마라.
- 양** 55년생 금전으로 크게 다들 우러가 있다. 67년생 부주의로 어려운 길에 놓인다. 79년생 공허로운 돈 탐내지 마라. 91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
- 개** 58년생 다름의 멀리하고 충들을 피하라. 70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나 변경하지 말라. 82년생 용감하게 추진한다면 득이 많다. 94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된다.

- 호랑이** 50년생 이성과 원거리 여행은 금물. 62년생 주변 다 알다시피 두 말하면 잔소리. 74년생 실속이 없고 남모르는 근심 있는 날. 86년생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98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긴다.
- 범** 53년생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65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히라. 77년생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다. 89년생 불화가 생겨 머로가 많을 것.
- 원숭이** 56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68년생 결과 속이 꼭 찬 모습. 80년생 수산업에 투자하라. 92년생 먼저 정한 바를 고집하라.
- 돼지** 59년생 경사스런 일이 겹칠 수도 있는 날. 71년생 몸은 고달프니 마음도 외롭구나. 83년생 길은이 한창 피어나는 때. 95년생 열심한 한디해서 농사는 아니다.